

‘딥페이크 범죄’ 대상 가리지 않고 무차별 확산

광주 男 기초의원들에 협박 메일 ‘10대·여성’ 위주 범죄양상 변화 사진 공개 꺼려 SNS 비활성화 “국제경찰 공조·신속 처벌 필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남성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일부 기초의원들이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범죄가 대상을 구애받지 않고 확대되면서 시민들도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광주경찰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3일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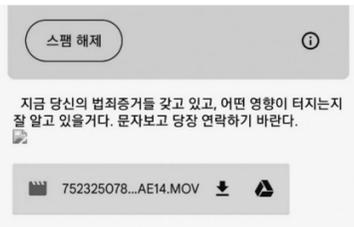
메일에는 ‘당신의 법적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알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의원 외에도 광산구 소속 의원 3명과 북구·남구의 남성 의원들에게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의회 누리집과 SNS에 공개된 사진·메일 주소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메일을 열람한 의원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 아직 미성숙한 분별력과 자제력에서 비롯한 ‘일탈’로 치부됐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



지난 3일 광주 광산구의회 소속 A의원에게 발송된 허위 합성 음란물(딥페이크)협박 메일.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제공**

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0대가 93.9%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73.6%를 차지하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통제·협박·조롱·굴욕감 등이 목적으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남성 기초 의원을 비롯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아이를 낳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SNS로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 오모(39)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 했다. 자신의 SNS에만 들어가도 수백개의 게시물에 가족사진들이 있는데 딥페이크에 활용될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오씨는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지인들과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육아용품을 협찬받고 홍보 게시글도 쓰는 등 조취수가 곧 돈이 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 뿐만 아니라 남편 심지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며 SNS나 온라인상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김모(25)씨도 상황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미용업계는 정해진 스타일대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닌 눈매, 이마, 얼굴형 등을 고려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상담받는 ‘헤어 컨설팅’이 주목받고 있어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 짧은 영상으로 올려 홍보를 하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마다 다른 얼굴형을 고려해 스타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SNS에 게시돼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제가 진행한 컨설팅 영상들이 SNS에서 전국으로 퍼져 제주에서도 찾아오는 등 홍보효과는 확실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소중한 손님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까봐 겁이 난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SNS에 게재된 글을 내리는 것보다 법적으로 대책이 마련돼 공포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범죄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악용 문제가 주목받는 만큼 경찰은 국제 경찰과 협조를 강화해서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전남대 체험학습

체험학습 나온 광주 한 중학교 학생들이 1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등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 투어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또래 피해자 서로 때리게 해 기소 강도살인 등 혐의 1심서 무기징역

또래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인 ‘가스라이팅’ 상태로 금품을 뜯어내고 학대해 숨겨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금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주시 자동차 전용도로의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

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의 모친에게 C씨가 민사 소송에 연관돼 있으니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생활 규칙을 정해 이를 어길 시 벌금,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C씨를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서로에게 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했다. B씨는 허벅지에 난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얕은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해 실제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협한 흥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찌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겨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가스라이팅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법률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12월 3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쿵!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쿵!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쿵!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읍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